



진실관계 : 음주와 암

인제대학원대학교 / 김 광 기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2010년 사망자 10명 중 세 명 정도는 암 때문에 돌아가셨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암 사망률은 18.9%나 증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동일한 기간동안 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증가하였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암 검진율도 증가하였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암센터의 설립도 급증하였다.

그리고 암 진단을 위한 고가장비들(CT, MRI, PET)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인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암 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장비를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암 사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암 사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원이 투입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암 사망 진행을 관리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인은 스트레스, 가족력, 잘못된 식습관,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양식과 조기검진을 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 중 국민들에게 가장 덜 알려진 암의 원인이 음주일 것이다. 과음과 폭음으로 인해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사실이 존재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은 이렇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남자의 경우), 유방암의 경우에는 음주가 원인이 된다는 점이 확실하며 간암과 여자에게 발생하는 대장암은 음주가 원인일 수 있다.

이 사실은 올해 7월 캐나다 의학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암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세계암연구재단(World Cancer Research Fund) 및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암 발생과 음주와의 관련성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린 결론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 동안 캐나다 정부가 국가음주지침에 근거하여 국민들에게 절주할 것을 권장해 온 점은 이와 같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암 발생 위험이 전혀 없는 음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음주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암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암 예방을 원한다면 음주를 권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파랑새포럼도 2011년 11월에 바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음주와 암 발생 간의 진실된 관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내 주변의 식구와 친척, 친구가 암으로 고통 받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매년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정하여 교육, 홍보, 학술활동 및 캠페인을 20여

개 단체와 정부기관이 함께하는 파랑새포럼의 2011년 주제가 바로 “지나친 음주, 암의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이다.

이제 음주와 암 발생과의 관계를 안 이상, 이런 질문을 해 볼 만하다.

다른 사람에게 발암물질을 권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술은 정(情)이라고 우기면서 권하기에는 주저함이 생기지 않는가? 암으로 고통 받는 가족, 친척, 친구나 동료들을 보면서, 이런 과학적 사실을 부정할 채술 권하는 문화를 여전히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과학적 사실보다는 문화적 관성에 젖어서 발암물질 섭취를 권장하거나 방임하는 사업장은 어떤가? 음주를 권장하는 회사 분위기에 맞추어 가기 위해 열심히 술 마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본인 책임이라고 배상안 해 줄 수 있을까?

잘 모르던 과학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공부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건강 향상을 위해 근로자 개인이 노력하여야 할 것도 있지만 그런 노력이 실천하기 쉬운 일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노력은 관리자들이 하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